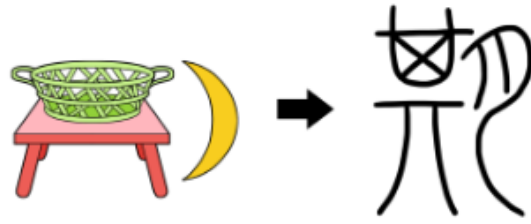


5  
-  
21

형성문자①



期

기약할  
기

期자는 '기약하다'나 '약속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期자는 其(그 기)자와 月(달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其자는 '그'나 '그것'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달은 주기적으로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달이 변하는 것을 보고 시간의 흐름을 알았다고 한다. 그러니 期자에 쓰인 月자는 시간의 흐름을 뜻하기 위해 쓰인 것이라 할 수 있다.

其

금문

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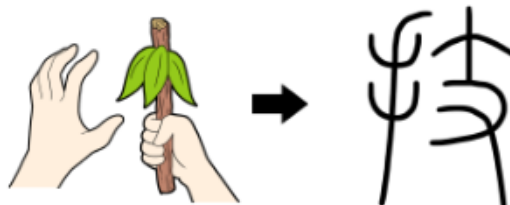
소전

期

해서

5  
-  
22

회의문자①



技

재주 기

技자는 '재주'나 '숨씨', '재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技자는 手(손 수)자와 支(지탱할 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支자는 나무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지→기'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技자는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 手자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그러나 후에 뜻이 파생되면서 손재주뿐만이 아니라 '재능'이나 '숨씨'와 같이 개인의 특별한 능력을 뜻하게 되었다.

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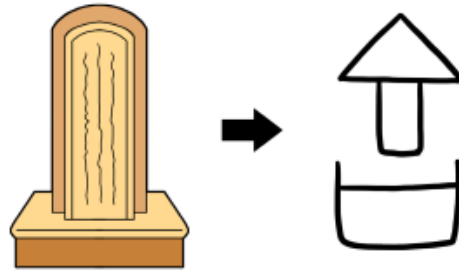
소전

技

해서

5  
-  
23

회의문자①



吉

길할 길

吉자는 '길하다'나 '상서롭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吉자는 土(선비 사)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吉자의 갑골문을 보면 무언가를 아래에 끼워 맞추려는 듯한 囍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신전에 꽂아두는 위목(位目)을 그린 것이다. 위목은 신이나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던 '위패'를 말한다. 그러니까 吉자는 성스러운 신의 이름을 올린다는 의미에서 '상서롭다'나 '길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니 吉자에 쓰인 土자는 위패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囍

갑골문

吉

금문

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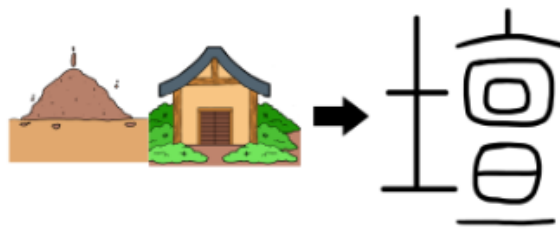
소전

吉

해서

5  
-  
24

형성문자①



壇

단 단

壇자는 '제단'이나 '강단', '장소'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壇자는 土(흙 토)자와 旦(밧음 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旦자는 제기(祭器)나 출정식에 쓰이던 도구를 보관하던 창고를 그린 것이다. 제기를 보관하던 창고를 그린 旦자에 土자가 결합한 壇자는 제사를 지내거나 출정식을 하던 넓고 평평한 장소를 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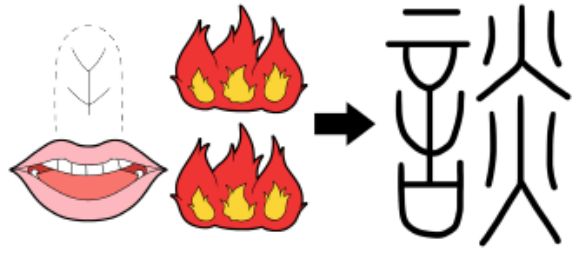
壇

소전

壇

해서

회의문자①



談

말씀 담

談자는 ‘말씀’이나 ‘이야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중국인들은 한자를 발전시키면서 때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수많은 글자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단순히 ‘말’을 뜻할지라도 글자 간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談자가 그러하다. 談자는 言(말씀 언)자와 炎(불탈 염)자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말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談자는 담판(談判)이나 담합(談合)과 같이 논쟁과 합의가 필요한 ‘말’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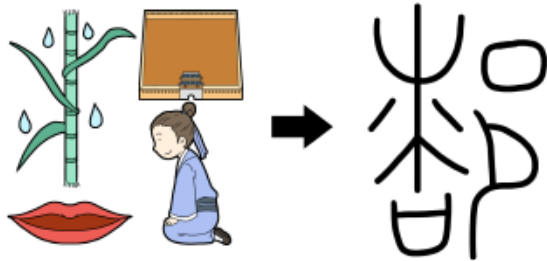
談

소전

談

해서

회의문자①



都

도읍 도

都자는 ‘도읍’이나 ‘도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都자는 耑(놈 자)자와 邑(고을 읍)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都자는 耑자가 아닌 ‘물가’를 뜻하는 澮(물가 저)자와 邑자가 결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고대 인류는 물가를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 인구가 늘어나고 성의 규모가 커진 이후에도 도시는 항시 물가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都자는 그런 의미가 반영된 글자로 물가를 뜻하는 澮자에 邑자를 결합해 물가를 끼고 있는 도읍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都자에 아직도 ‘웅덩이’나 성 밖을 둘러싼 ‘못’이라는 뜻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都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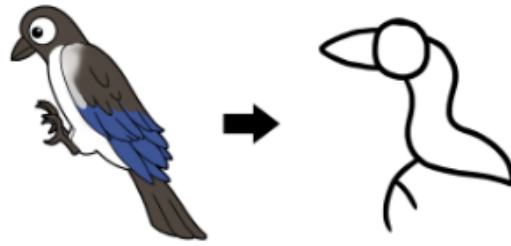
都

소전

都

해서

## 상형문자①



鳥

섬 도

鳥자는 '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이미 새를 뜻하는 글자로써 隹(새 추)자가 있지만 鳥자는 모든 새를 총칭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鳥자의 갑골문을 보면 두꺼운 부리와 큰 눈이 묘사된 새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이 어떤 새를 그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전적으로는 鳥자가 '큰 새'를 뜻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鳥자는 새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부수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새의 종류'나 새와 연관되는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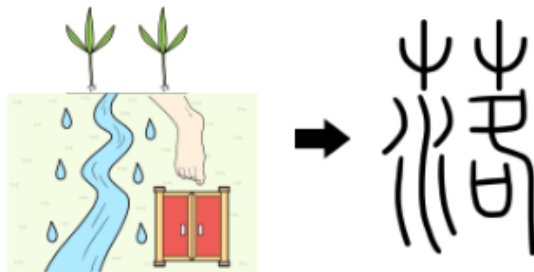


소전



해서

## 형성문자①



落

떨어질  
락

落자는 '떨어지다'나 '떨어뜨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落자의 생성과정은 비교적 복잡하다. 落자의 갑골문을 보면 비를 뜻하는 雨(비 우)자와 '가다'라는 의미의 各(각각 각)자가 결합한 모습이었다.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零(떨어질 각)자가 본래 '떨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零자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다'를 표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落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零자와 落자를 서로 혼용했지만 지금은 落자만 쓰이고 있다. 落자는 나뭇잎이나 비가 '떨어지다'를 표현한 것으로 零자에 艹(풀 초)자를 더해 의미를 확대한 글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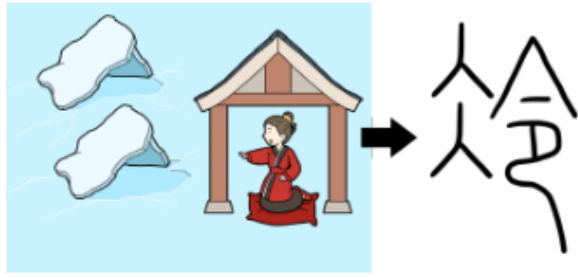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冷

찰 랑:

冷자는 '차다'나 '식히다', '쌀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冷자는 冫(얼음 빙)자와 令(영령)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令자는 군주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冷자는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군주와 冫자를 결합한 것으로 '차다'나 '쌀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冷자에 '인정미가 적다'라는 뜻까지 있는 것을 보면 이 글자는 냉혹하게 명령을 내리는 군주를 빗대어 만들어진 글자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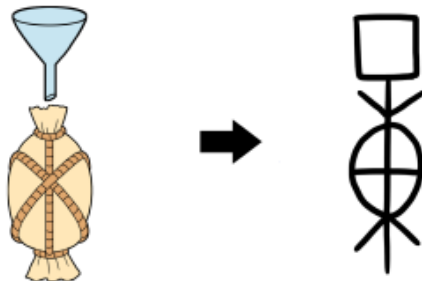
冷

소전

冷

해서

회의문자①



量

헤아릴  
량

量자는 '헤아리다'나 '재다', '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量자에서 말하는 '재다'나 '달다'라는 것을 무게를 측정한다는 뜻이다. 量자는 𠂔(아침 단)자와 里(마을 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量자의 갑골문을 보면 東(동녘 동)자 위로 네모난 모형이 𠂔 그려져 있었다. 東자는 곡식의 씨앗이든 볏짚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곡식이 들어있는 볏짚을 그린 東자 위에 口자가 있는 것은 깔때기가 꽂혀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量자는 볏짚에 곡식을 담으며 양을 헤아린다는 의미에서 '헤아리다'나 '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𠂔

갑골문

𠂔

금문

量

소전

量

해서